

우후죽순 ‘태양광시설’ 안전 무방비

지난해 전국 허가 9천건 중 전남이 39% 차지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 산사태 등 위험 상존
 시군별 허가요건 달라... 정부 뒷북 대책 빈축

정부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면서 전남지역은 일조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지가가 비교적 저렴해 태양광 발전사업허가가 집중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은 잦은 민원 발생과 산사태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남도와 태양광 발전사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관련 개발허가가 전국적으로 총 9,007건 가운데 전남권 태양광 개발허가가 3,533건으로

39%나 차지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이 시·군마다 도로로부터의 떨어진 거리가 100m~1000m로 서로 달라 지역별 차이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다 농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령에 따라 농업구역 내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전국 허가 9천건 중 전남이 39% 차지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 산사태 등 위험 상존 시군별 허가요건 달라... 정부 뒷북 대책 빈축

정수하기로 해 앞으로 신규 사업자가 임야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용섭 “광주형 일자리 정부 지원해야” 김영록 “울촌2산단 국가산단 전환을”

혁신경제 관계장관회의서 건의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발굴·확산을 위한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혁신경제 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참석,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현안임을 강조하고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연석회의에서 시·도지사 대표로 발언한 이 시장은 “광주형일자리 모델이 성공하면 고임금, 노사문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등 다양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는 빛그린산단과 도점산단을 묶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해 내 추가지정 계획을 발표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모델 전국 확산 소요비용과 함께 광주권

경제자유구역,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 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도도 울촌 제2일반산단의 국가산단 전환, 여수국가산단 공업용수 안정적 공급, 초소형 전기차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사업 등 지역현안 5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여수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이 공장 증설투자 의향이 있으나 용지와 물이 부족한 형편”이라며 “인접해 조성되는 울촌 2산단을 조기 매입해 국가산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해수부의 여촌뉴딜 300 사업은 생활밀착형 SOC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하되 어촌과 향포구가 많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남을 많이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울촌2산단의 국가산단 전환은 관계부처와 조율해 조정되도록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정근산·황애란 기자



8일 오전 2018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한달 앞두고 비엔날레 2전시실에서 첫 반입 작품인 방글라데시 작가 무넴 와시프의 ‘씨앗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작품이 공개되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비엔날레 반입작품 첫 선

광주비엔날레는 8일 2018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한 달 앞두고 비엔날레전시관 2전시실에서 전시작품 첫 반입행사를 가졌다. 광주비엔날레에서 선보일 북한미술작품 22점도 최근 국내에 들

어와 다음주께 광주로 옮겨올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5면> 8일 첫 반입 작품으로 해포식을 가진 방글라데시 작가 무넴 와시프의 ‘씨앗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30여 개

프린트로 구성된 평면 작품이다. 광주비엔날레는 작품 운송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됐으며, 전시관 공간 공사를 비롯해 작품 반입 및 설치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 표는 “비엔날레에서 만날 북한미술품들도 최근 국내에 반입됐다”며 “작품 전시를 위해 서울에서 표구작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에 들어온 북한 미술품은 대형 집체화 6점을 포함해 모두 22점이며, 이들 작품은 현재 서울 미술전문 업체에서 전시와 감상, 보관을 위한 표구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측은 표구작업을 끝내고 이들 작품을 전시할 스튜디오 공사를 마무리하면 북한작품들을 광주로 옮겨올 예정이다. /이연수 기자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통합물관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8년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영산강·섬진강 유역토론회

- 일 시 : 2018. 8. 10(금) 14:00
-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